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여호수아 8:30-35)

구약성경 중 율법의 심장부는 신명기이고, 신명기의 핵심은 저주와 축복, 즉 저주받을 죄와 복 받을 순종을 기록한 신명기 27-20장입니다. 구약에 가득 찬 축복은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는데 조건 없는 축복과 조건 있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조건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1-2).

그러나 본문에서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조건 없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신 11:26-28, 28:1. 15절 이하). 이것은 조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은 조건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약속되는 복이나 저주는 조건 있는 복입니다.

### 1.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 역시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특별한 집회를 통해 저주와 축복의 길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신 27:11-15).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이 성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을 각각 여섯 지파로 나눠 그리심 산에서 12가지 축복을, 에발 산에서 12가지 저주를 외치게 하고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습니다.

세겜에 있는 이 두 산은 지금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푸른 숲과 황폐한 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낳는다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고도 계획적인 순종이 요구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비결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사사들과 왕들의 흥망성쇠가 여기에서 기인했고 앗수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나 귀환의 축복,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망한 것 모두가 군사력이 나 정치적 힘이 크고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 2. 에발 산에 단을 쌓으라

본문에는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이스라엘 12지파 백성과 본토인, 이방인이 모두 모인 가운데 모세가 정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에발 산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하기 전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미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돌 위에 새겨지고 레위인들은 크게 암송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이 제단은 율법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은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그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희생양이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단은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 3. 죄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단을 쌓으라

인위적인 인간의 기술이나 솜씨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 서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을 금하십니다.

구원 사역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가미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자기 의를 가

지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발 산, 즉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에발 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알곡이 아닌 가라지요. 버림받고 마침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듭plex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com)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살아있는 역사 전시물들

-서울교회의 숨소리를 듣는다-

우리교회는 예배당 건축양식이나 구조 면에서 장엄하면서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경건과 신선함을 체험한다. 거기에 실제로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마치 서울교회의 숨소리라도 들려지는 듯한 역사 전시물들을 만나게 된다.

1층 웨스트민스터 홀 좌편 복도에는 성경통독사 경희, 김치신학세미나 등 교회 행사에 해마다 참여한 이들의 싸인판이 걸려있다. 3층과 4층 로비에는 예배당 공사를 시작할 때 첫 흙을 판 삼과 각종 기념패와 선교의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다. 3~4층 계단 사이에는 성경암송 필사 원본이 법체 크기의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고 5층 복도에는 김치세미나 참여국 국기와 나라 이름들이 박힌 게시물과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자 명단과 우리교회 창립 멤버들의 싸인판 그리고 교회 정문 앞의 돌성경 원본인 동판 성경이 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 교회 3·4층 계단참에 전시된 암송필사성경

## 대학부 제3회 성경통독수련회 ·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회

8월14일(월)~16일(수) 3일간 701호에서

대학부는 학생들의 성경 일년 일독을 권장하고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캠퍼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8월 14, 15, 16일 3일간 성경통독수련회를 가진다.

금년 수련회는 2004년, 2005년에 이어 제3회가 되며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01호

에서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된 우리 교회 단기선교단을 위한 기도회도 함께 가질 계획이다.

대학부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도 대학부 성경통독수련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출발

18일(금) 오전 8시 귀국

제6기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단장 신용식 장로)이 지난 10일(목) 오후 5시 50분 인천공항을 통해 현



지로 출국하였다. 카자흐스탄 따라즈 지역으로 파송 받은 이번 선교팀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준, 강해정 선교사를 도와 '미르' 교회당 건축을 돕는 한편 의료 및 미용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출발 전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가족들과 성도들의 전송을 받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라(빌 2:5)는 이종은 목사의 말씀을 받고 기도 후 떠났다.

## 제30학기 목회자세미나 준비 시작

8월10일(목) 참가안내장 발송완료

제3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가 시작되었다. 교회갱신연구원(원감 조정식 장로)은 지난 8월10일(목) 전국의 교역자들과 교회갱신연구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3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팸플릿과 신청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교회갱신연구원은 목회자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계속 준비하는 한편 세미나 시작 후 전국의 교역자들을 잘 안내하고 편히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봉사하실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 2006 열린바자 실행위원 임명

이웃사랑·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2006 열린바자(위원장: 노송성 장로)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의 장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실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 기획부 실행위원: 이강인 최임수
- 재정부 실행위원: 전광영 원용범 이영희 김정희 안분선 이인숙
- 판매관리부 실행위원: 오지열 김시환 장 덕 은기장 최미아 정미연 위성남
- 시설부 실행위원: 오우식 김현영 윤운식 유근종 이인근 최명수 박희서 김원웅 김광욱 윤종덕 예완식 원용규 송성식
- 섭외부 실행위원: 최규조 우상태 장두현, 이종창
- 홍보부 실행위원: 서춘식 유대서 신동기
- 3점포 영업부장: 우지원
- 2점포 실행위원: 이자혁 오종례 손현순 이윤희 신금전
- 3점포 실행위원: 박이선 노인숙 소선자 김현정 박정순
- 4점포 실행위원: 이현주 박재숙 김숙연 최종희 나연신 최문주 김숙자 백혜숙 마은숙 박우욱 문형순 김영란 정 천 김상태 김현관 김금준
- 6점포 실행위원: 김규희 노정숙 최성희 유종숙
- 7점포 실행위원: 윤운식 이영숙 이상호
- 8점포 실행위원: 김광욱 서영희 주의현 여현진
- 9점포 실행위원: 이남성 최영란 이영희 이상애 김순자 윤종덕 김운숙 최양자 고원순 조상희 김명화 이순영
- 10점포 실행위원: 류종관 예완식 김경희 홍재식 진선자 서순영 안분선 박연순
- 11점포 실행위원: 이명조 안인호
- 12점포 실행위원: 오형철 김형택 장 덕 한길동 김관홍 박영욱 전원순 위성남
- 13점포 실행위원: 이순희 김영식 박춘자 권은주
- 14점포 실행위원: 권혁우 김우숙

## 베들레헴 찬양대원 추가임명

강석조 안선광 조상환 강신태 김명선 민병환 여상범 이진구 신항범 최정인 최홍렬 탁경준

## 장로 수련회 신혼가정부 수련회

장로 수련회: 15일(화) 안산공대  
신혼가정부: 17일(목)~19일(토) 청룡회관

장로 수련회와 신혼가정부 수련회가 금주 중에 열린다. 장로 수련회는 8월15일(화) 하룻동안 안산공과대학(이사장: 장인원 집사)에서 장로 가족, 새로 선발된 선교사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신혼가정부 수련회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청룡회관(김포)에서 열린다.



광복절 특별기획

# 광복절과 신사참배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날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곳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합사해놓았기 때문이다. 8월 15일은 우리로서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으로서는 2차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사실상 자신들의 패전을 만방에 알린 날이다.

굳이 이날에 수많은 잔학행위와 침략을 일삼았던 과거 일본군의 책임자들을 신(神)으로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그것도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참배를 하는 것, 피해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이즈미는 "신앙의 자유, 마음의 문제"라는 구실을 대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순수하지 않은 행동임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 바로 이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

작한 것은 1930년대 초 민족말살정책을 펴면서부터이다. 이때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 땅에 2백여 개의 신사를 지었고, 해방때까지 모두 1140여개의 신사를 만들었다. 일제는 특히 당시 기독교계 교육기관, 즉 학교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폐교시키거나 자진 폐교를 유도했다.

이 때문에 1937년을 전후해, 송실, 수피아, 영흥, 패산, 신흥, 계성, 신명, 경신, 정신학교 등 당시 미션계통의 학교 수십 곳이 잇따라 폐교를 당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마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하고, 급기야는 1938년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 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일본 경찰의 감시 속에 끝내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부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뜻있는 기독교인들의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와 평북의 이기선, 경남의 한상동, 전남선, 전남 순천의 손양원 전도사 등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에 앞장섰다. 8.15광복 때까지 10여년 간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기독교인은 2000여명에 달했다.

또한 200여개의 교회가 폐쇄됐으며 50여명이 순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으며, 당시 교회의 변질을 경고함은 물론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위기에 빠진 민족사회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조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광복 61주년을 맞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된다.

김민철(편집부)



만민에게 전도-한나전도회 일일수련회

## 말씀으로 걸어간 순례의 길

이은의 권사(한나 여전도회 총무)



8월 8일, 입추라고는 하지만 따가운 햇살과 폭푹한 습기로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폭염속에 30여 명의 한나 여전도회 회원들은 광림수도원으로 향했다. 도착하여 예배를 드린 후 올라간 기

도원 뒤편 야산의 기도공원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여주는 11개의 청동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등 각각 성경 말씀을 토대로 크고 작은 형상을 세워놓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정수길 목사가 기독교의 형상(icon)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 각각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구절을 찾아 읽으며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런 다음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기도를 하고 다음 조각상으로 옮겨갔다.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걸었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 기도원으로 향할 때는 무더위 때문인지 혹은 현재의 평온한 일상 때문인지 특별한 기대나 바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길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대와 소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여 만들어 놓은

청동 모형의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직접 밟아보고 모세의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를 찾아 먼저 보고 느껴본다면 그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일까! 올 가을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떠날 Pilgrims' Vision Trip(서울교회 성지순례단)을 그려보며 그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작은 결심을 해본다.

기도공원의 11개 형상 앞에서의 귀한 말씀과, 오후에 이어진 '그리스도인의 신분적 특권'에 대한 복된 말씀, 기도회에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주신 것에 대해 뜨겁게 감사하자면서 기도회를 이끄신 정수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일일수련회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시고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이인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뜨겁게 찬양을 드린 회원들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기도로 아들을 얻은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본다. 그리하여 청량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준비하는 자녀가 되고, 주의 생명과 축복을 널리 흘러가게 하는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단기선교팀 현지 보고

제 6기 단기선교팀은 한국시간 8월 10일 오후 5시 50분 인천공항을 출발, 카자흐스탄 현지 시간 오후 11시에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여 버스로 산길을 7시간 가량 이동하여 목적인 파라즈에 도착하였습니다.

장시간 여행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팀 30명은 모두 건강합니다. 한국과 이곳은 시차가 2시간 뿐이어서 저희가 사역하기에 별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그간 낮 기온이 연일 40도가 넘는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저희가 도착한 시점으로 기온이 10도 가량 떨어져 저희들 앞에 걸림돌 하나가 없어진 셈입니다.

카자흐스탄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러시아정교가 허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기독교에 비교적 호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공개적인 선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고령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는 반면 저희 이은준 선교사님은 순수 카작인들만을 대상으로 선교하십니다.

이번 선교는 무엇보다 미르 교회 건축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미르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님의 목회에 큰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료 봉사과 미용 봉사과 파라즈 주민을 섬기고 주일에는 주변 어린이들을 모아 찬양을 가르치며 짧은 카작어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사 오주명

만민에게 전도 - 캄보디아 군선교

# 캄보디아 군대에 복음의 씨앗을...

이갑진 장로(12교구, 영어예배부 부장)

하나님께서 금년 7월1일부터 21일까지 캄보디아의 제1 여단과 탱크 사령부, 2개 부대에서 영어캠프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어캠프란 복음이 바로 들어가기 힘든 미전도 군인들에게 영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복음을 받게 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이번의 경우 한국, 미국, 캄보디아의 8개 기관에서 총 101명이 동참하여 영어교육, 성경공부, 컴퓨터교육, 어린이/군 가족 사역 및 의료진료, 태권도 선교, 리더십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서울교회 파송 이재을 선교사는 현지 실무책임자로서 대상부대 설치와 협조, 참가자들의 준비, 지원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온 가족이 총동원하여 운전, 안내 및 식사준비 등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국가의 안보 집단인 군대 내에서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가 활동 하려면 부대장의 공식적인 승인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나 선교활동은 부대의 사전 양해는 물론 비기독교 교육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려는 자세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번의 사역은 양 개 부대장의 승인과 협조 아래, 장군을 포함한 각 부대별 100여명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성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날이 가면서, 비록 초보이기는 하나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자라나고,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살아났으며,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학교 역시 최초 각 부대별로 80명, 30명으로 예상했으나, 150, 100명으로 늘어나, 교육용품과 간식을 매일 더 사와야 하는 행복한 부담을 안았습니다.



4월 동안의 의료지원 또한 500명 예상에 75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약을 받는 사람마다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저들은 "아멘"과 "아군(감사합니다)"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영어교육 분반을 위해 인터뷰를 할 때 술 냄새를 풍기던 장교들이 이틀 후에는 "좋은 하나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노래하고 울동을 따라 하며, 일주일이 지나자 반별 찬양경연에서 열연을 하고, 목사님의 결신을 위한 기도 후 거의 총원이 일어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이 물도 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어캠프 사역 중 "김치세미나"에 참가했던('97,'04) 여섯 분의 캄보디아 목사님들과 한 분의 라오스의 목사님을 초청,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김치세미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종윤 목사님의 지도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천국시민양성 - 신혼가정부 수련회 초대이 글

## 당신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한상욱 성도(13교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연합하여 새 가정을 이루신 서울교회 새 남편 새 아내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홀몸인지만 기도하기 수월하고 수련회나 기타 신앙훈련에 동참하기 비교적 쉬웠지만 새가정을 이루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또는 아내)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움직이려니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여건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새생명을 허락하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다면 더욱더 그러한 기회를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정신없는 현실을 잠시 접어 두고 앞으로 더 나은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같이 누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열국의 아버지와 어

머니가 되어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며 지극히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그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미리 기도의 팜방울을 흘리는 멋진 예비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그 첫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가정의 등지를 튼 신혼부부들끼리 믿음의 친구와 동역자들을 사귀며 서로의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이 맺어질 것입니다.

8월 17일 - 19일 (목, 금, 토)의 3일 동안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유익함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누리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가정부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동정

- 교역자 하기 휴가: 한상은 목사, 박광일 전도사  
· 대행: 이규정 목사, 지혜영 전도사
- (발령) 이병도 성도(1교구, 박미영 집사 부군) 신한은행은 마아파트 지점(은마상가 2층) 지점장
- 득녀 이장식 성도, 진현정 성도(12교구) (이갑진 장로 차남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빌립선교회(8월13일)  
안드레 선교회(8월20일)
- 금주의 식사 제공: 황선희 권사 황선철 목사  
(어머니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폭염 속에서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방글라데시 유스호스텔 건립 위하여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도록
5.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복한의 신앙 자유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